2023 년 8 월 2 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Strategist 한지영** 02)3787-5241 hedge0301@kiwoom.com
Market 김지현 02)3787-3761 jeehyun12@kiwoom.com



미 증시, ISM 제조업지수, 고용, 실적에 주목하며 혼조세

미국 증시 리뷰

1 일(화) 미국 증시는 ISM 제조업지수 및 고용지표 부진 등 경기둔화 우려 상존한 가운데, 애플 등 빅테크 실적에 대한 관망심리, 화이자, AMD 등 개별기업실적에 주목하며 업종별로 차별화된 흐름 보이다 혼조세 마감 (다우 +0.2%, S&P500 -0.27%, 나스닥 -0.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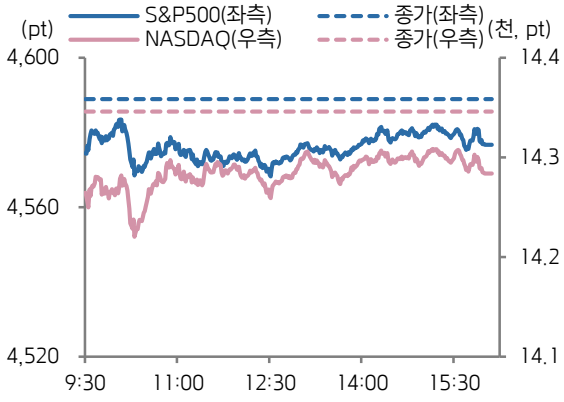
미국 7 월 ISM 제조업지수는 46.4(예상 46.8, 전월 46.0) 기록하며 9 개월 연속 50 하회. 신규 주문은 전월 45.6 에서 47.3, 생산 46.7 에서 48.3 로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반면, 물가지수는 41.8 에서 42.6 으로 상승, 고용 지표는 48.1 에서 44.4 로 하락하며 2020 년 7 월 이후가장 낮은 수준 기록. "팬데믹 이후 고객들의 소비가 상품에서 서비스로 옮겨가면서 제조업계는 수요 둔화에 시달렸다", "제조업체들이 해고를 늘리거나 고용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미국 6 월 JOLT 구인이직건수 역시 958.2 만건(예상 960.0 만건, 전월 961.6 만건)로 전월치와 예상치를 모두 하회, 2 년래 최저치를 기록. 자발적 퇴직자 수는 377 만건으로 전월보다 29 만 5 천건 감소했으나, 해고는 전월 154 만건에서 152 만건으로 소폭 감소에 그침. 구인과 해고 건수가 모두 감소한 것은 과열됐던 고용 수요가 줄어든 가운데 기업들이 여전히 고용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

업종별로 산업재(+0.3%), IT(+0.1%), 금융(0%) 강세, 유틸리티(-1.3%), 경기소비재(-1.1%), 헬스케어(-0.5%) 약세. 우버(-5.68%)는 개장전 2 분기 실적에서 EPS 손실을 예상했던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여 이른 흑자 전환을 달성하는 서프라이즈 발표. 여행 건수, 총 예약 건수 및 활성 운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모빌리티 사업부문이 YOY 38%, 배달부문이 14% 성장했다고 언급하며 주가는 상승했으나, 지표부진으로 인한 경기둔화 우려 부각되며 하락 전환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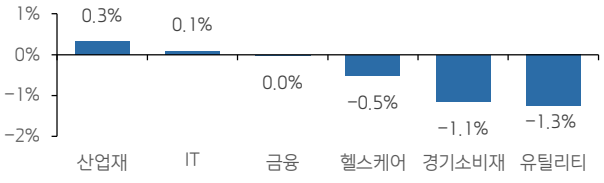
화이자(-1.25%)는 2 분기에 이익은 양호하나 코로나 19 백신 및 항바이러스제 팍스로이드의 판매가 전년동기 140 억달러에서 16 억 달러로 급감하는 등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하며 약세. AMD(2.80%)는 매출, EPS 가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고, AI 관련 장후 시장에서 5% 이상 급등.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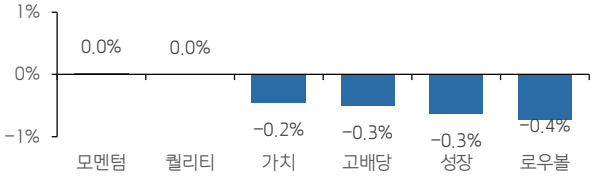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667.07	+1.31%	USD/KRW	1,283.79	+0.74%
코스피 200	351.00	+1.56%	달러 지수	102.00	+0.14%
코스닥	939.67	+0.4%	EUR/USD	1.10	+0.25%
코스닥 150	1,545.48	-0.37%	USD/CNH	7.18	-0.07%
S&P500	4,576.73	-0.27%	USD/JPY	142.85	-0.34%
NASDAQ	14,283.91	-0.43%	**채권시장**		
다우	35,630.68	+0.2%	국고채 3 년	3.650	-3.2bp
VIX	13.93	+2.2%	국고채 10 년	3.733	-3.2bp
러셀 2000	1,994.17	-0.45%	미국 국채 2 년	4.902	+2.5bp
필라. 반도체	3,858.21	-0.09%	미국 국채 10 년	4.023	+6.4bp
다우 운송	16,530.42	-0.52%	미국 국채 30 년	4.092	+8.2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407.54	-1.43%	WTI	81.96	+0.73%
MSCI 전세계 지수	703.60	-0.5%	브렌트유	84.91	-0.76%
MSCI DM 지수	3,048.60	-0.51%	금	1988.2	+0.48%
MSCI EM 지수	1,043.09	-0.36%	은	24.5	+0.69%
MSCI 한국 ETF	67.56	-0.01%	구리	391.05	+0.05%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check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01%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1.26%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20%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287.22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장중 미국 선물 및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2. AMD 의 호실적으로 인한 시간외 주가 급락이 국내 반도체주 투심을 개선시킬 지 여부 3. 지난주에 이어 지속되고 있는 2 차전지주들의 수급 변동성 여진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전일 발표된 제조업황 경기 및 고용시장 결과는 골디락스 전망이 제기되고 있었던 미국 경기에 대한 전망 변화를 유발한 상황. 7 월 ISM 제조업 PMI 는 46.4 로 전월(46.0)에 비해 소폭 반등했으나 컨센(46.8)에 미치지 못했으며, 이는 세부항목 상 고용(6 월 48.1 -> 7 월 44.4) 둔화가 주된 영향을 가했음. 같은 맥락에서 6 월 채용공고가 958 만건으로 전월(962 만건) 및 컨센(961 만건)을 하회했다는 점이나 자발적인 퇴직자들(6 월 348 만건->7 월 377 만건)도 증가했다는 점을 미루어보아, 그간 탄탄한 모습을 보였던 고용시장에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시사.

물론 ISM 지표 상으로 고용 이외에도 신규주문(6 월 45.6 ->7 월 47.3), 생산(6 월 46.7 ->7 월 48.3) 등 여타 주요항목이 개선됐다는 점을 미루어보아, 경기판단 기준선인 50 선을 하회하며 취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미국의 전반적인 제조업황이 추가 악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임. 결국 골디락스 전망이 가장 이상적인 증시 레벨업 시나리오이긴 하나, 경기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가면서 현시점부터 '23 년말~'24 년초까지 완만한 경기 후퇴를 기본경로로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전일 국내 증시는 7 월 수출 부진, 2 차전지주들의 주가 변동성 확대에도 반도체, 바이오 등 여타 업종으로의 수급 분산이 나타난 효과에 힘입어 대형주를 중심으로 상승 마감(코스피 +1.3%, 코스닥 +0.1%). 금일에는 코스피 신고가 기대감, AMD 의 호실적 등 상방 요인과 2 차전지주들의 수급 불확실성,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같이 하방 요인이 공존함에 따라 정체된 주가 흐름 속 업종별 차별화 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미국 장 마감 후 신용평가사 피치는 재정 약화, 부채한도 문제 등을 이유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기존 "AAA"에서 "AA+"로 강등했으며, 그 여파로 현재 미국 나스닥 선물은 0.3%대 내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오전 7 시 25 분 기준). 다만 이미 피치 측에서는 지난 5 월에 등급 강등을 경고한바 있으며 옐런 재무장관 역시 이 같은 강등 결정에 대해 구시대적이라고 비판했다는 점을 감안 시, 증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인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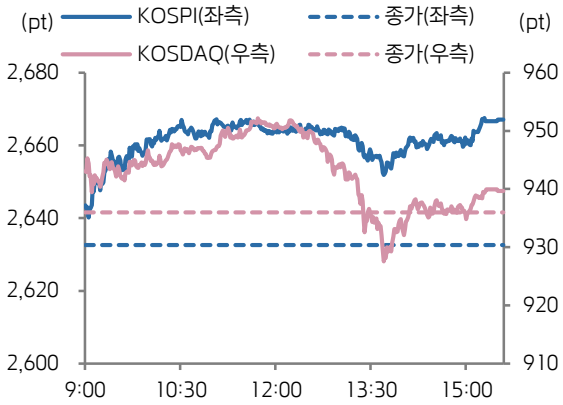
한편, 전일 발표된 한국의 7 월 수출은 -16.5%(YoY)로 전월(-6.0%) 및 컨센(-14.5%)을 모두 하회했으며, 일평균 수출도 -16.5%로 전월(-10.1%)에 비해 감소폭을 확대. 품목별로도 자동차(+15.0%), 가전(+2.5%), 일반기계(+3.2%)를 제외한 반도체(-33.6%), 철강(-10.2%), 이차전지(-16.0%) 등 대부분 품목이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실정.

그러나 전일 국내 코스피가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반도체, 바이오, 인터넷 등 위주로 강세를 보였다는 점이 특징적인 부분. 이는 2 차전지 업종에 가려 소외되었던 업종들의 수급 빈집 효과가 작용한 영향도 있겠으나, 7 월 수출 부진이 국내 상장사들 실적 전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판단.

작년 7 월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8.6%)을 기록한데에 따른 역 기저효과가 작용한 측면이 있는 가운데, 하반기로 갈수록 감산 효과 가시화에 따른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도 지속되고 있는 모습. 또 장 마감 후 AMD(+2.8%)가 AI 관련 반도체 매출 증가 등으로 호실적을 기록함에 따라 시간외 4%대 내외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7 월 국내 반도체 수출 부진의 여파를 상쇄시켜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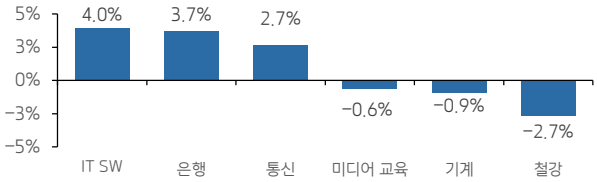
더 나아가, 상기 언급했듯이 미국의 7 월 ISM 제조업 PMI 가 부진했음에도, 한국 수출에 선행성을 지닌 신규주문이 47.3 으로 전월(45.6) 및 컨센(44.0)을 모두 상회했다는 점도 생각해볼 필요. 이를 감안 시 한국 수출과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코스피 이익 전망은 바닥 통과 국면을 지나고 있다는 기존의 전망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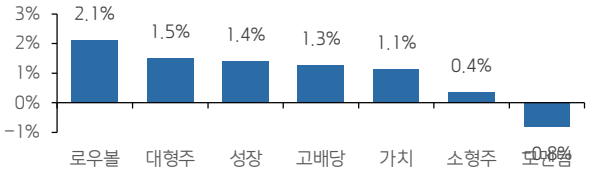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